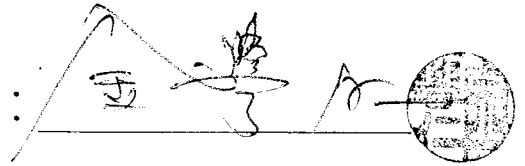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본 현대설교

대신대학신학연구원
연구과 설교학 전공
임 광 남

임광남의 석사학위과정 논문을 인준함!

주 심: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followed by a circular stamp. The signature appears to be '김광남' (Kim Kwangnam). The stamp is a circular seal with some illegible text inside.

1991년 월 일

대신대학신학연구원

목 차

- I. 서 론 1
 -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II. 개혁주의 설교연구를 위한 서설 3
 - 1. 설교란 무엇인가 3
 - 2. 설교의 어원적 고찰 5
 - 3. 설교의 중요성 7

- III. 설교역사에 나타난 시대적 설교의 특성 11
 - 1. 사도들의 설교 12
 - 2. 종교개혁시대의 설교 14
 - 3. 청교도의 설교 17
 - 4. 최근의 설교동향 20

- IV. 개혁주의적 설교의 원리 23
 - 1. 예배에 있어서 설교의 위치 23
 - 2. 설교의 기초 25
 - 3. 설교의 목적 28

4. 성경해석 방법	29
V. 설교와 설교자	36
1. 소명감	36
2. 생동적인 기독교체험	38
3. 계속적인 연구	39
4. 성령에 전적의지	39
VI. 현대 설교의 문제점	42
VII. 개혁주의적 설교로서의 강해설교	46
1. 강해설교 준비를 위한 기본원리	47
2. 강해설교의 유익성	49
3. 강해설교의 가치	50
VIII. 개혁주의가 지향해야 할 설교현장 진단	52
1. 초청과 결단	52
2. 초청에 대한 반응	54
3. 초청하는 복음의 적용	61
IX. 결 론	63
참고문헌	65

I.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설교 역사 학자인 다간(E. C. Dargan)은 말하기를 「설교의 역사는 바로 교회의 역사」라고 말한 적이 있다. 즉, 그 말의 뜻은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를 보면 그 당시 교회의 사건과 신학과 신앙과 생활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¹⁾ 이것은 2000년 기독교회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설교가 바로 선포되었을 때 그 때가 바로 교회의 성장 시기였고, 사회 모든 면에서 진보와 활력이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이상 기독교는 설교의 종교인 것이다.²⁾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설교를 빼어버린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일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설교는 우리 개혁주의 예배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설교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설교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볼 때 현대 교회가 지고있는 책임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각종 설교가 행해지고 있는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고 생각된다.

세계적으로 볼 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설교들이 각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

1) 정성구, 「한국교회 설교사」, (서울:총신대학 출판부, 1986), p.7.

2) 정성구편, 「설교학 개론」, (서울:세종문화사, 1983), p.30.

르게 선포하는 설교가 얼마나 되는가는 의문이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새벽설교, 주일낮설교, 주일밤설교, 금요일 구역예배설교, 수요일밤설교, 철야기도회때의 설교 등 수많은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는 개혁주의적 입장에 따른 올바른 설교 신학을 정립하여 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한국교회 강단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설교를 소중히 여겨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설교가 참된 설교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지내왔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설교의 올바른 원리와 형태를 제시하여서 설교자들로 하여금 개혁주의적 입장에 입각한 설교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연구의 범위는 사도시대와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근대교회시대에 나타나는 개혁주의적인 설교내용을 살펴본 다음 개혁주의적 설교의 원리와 올바른 설교의 형태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는 설교의 정의, 어원적 고찰, 설교의 중요성 등을 살펴보고, 성경과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개혁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원리들을 통해 개혁주의적 설교의 기초를 견고히 하고 올바른 설교자상을 정립하여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올바른 개혁주의적 설교형태를 확립하고자 한다.

II. 개혁주의 설교연구를 위한 서설

1.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설교학자들이 많은 시도를 해보았으나 “말씀의 봉사”³⁾라는 의미의 사도적 개념이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엄숙한 부분인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⁴⁾는 말씀을 크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래서 여러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내린 정의를 살펴봄으로 설교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설교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자신을 인간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인간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는데, 그는 죄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므로 설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인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인 설교를 광안련 박사는 정의하기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범있는 종교적 감화이다”⁵⁾ 라고

3) 행 6 : 4

4) 딤후 4 : 1~2

5) 광안련, 「설교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1), p.16.

했으며, 피타고라스와 같은 웅변가들의 귀만을 이용하였던 강연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루돌프 보렌은 “설교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설교자가 성령의 인도에 의하여 성서의 말씀을 고백으로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다”⁶⁾ 라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같이 설교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부터 연관되어져야 하며,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즉, 성경말씀 자체만을 설교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속에 내포되어 있는 심오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증거함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화를 끼쳐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는 에반스(William Evans)가 정의한 바와 같이 그것은 “인간에 대한 구원의 복음에의 선포”인 것이다. 따라서 참된 설교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씀이라기 보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6) 루돌프 보렌, 「설교학원론」, 박근원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p.21.

2. 설교의 어원적 고찰

1) *κηρυγμα*

케릭그마(*κηρυγμα*)는 본래 우리말로 ‘전파한다’ ‘선포한다’ ‘전한다’라고 번역된 동사 ‘케뤼세인’(*κηρυσσειν*)에서 파생된 명사형이다⁷⁾ 이 용어는 우리말 성경에 ‘전도’ 혹은 ‘전파’로 번역되어 있으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나 전파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

*κηρυγμα*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를 ‘*κηρυγμα*’라고 했다. 바울이 천명한 ‘*κηρυγμα*’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것은 그의 신학사상의 핵심이다. 이러한 *κηρυγμα*의 내용은 사도들이 전파하던 메시지의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계시의 중심으로 하여 또 십자가를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는 것⁸⁾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은 모든 성경의 요지이며 진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그러한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주가 된다는 사실과 따라서 죄인들의 회개와 십자가의 사죄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한 그것이다.

오늘날의 설교에도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이러한 내용을 함축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설교는 *κηρυγμα*적

7) 「신학사전」, (서울: 한국 개혁주의 신학회, 1978), p.706.

8) 이순환, 「신약원어 연구해설」, (서울: 청암사, 1980), p.279.

요소와 또 다른 한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소위 디다케 (διδαχή) 적 요소인 것이다.

2) 디다케 (διδαχή)

디다케는 우리말로 ‘교훈’ ‘교육’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막 4:2 ; 12:38 ; 마 16 ; 2 ; 요 7:16,17 에 나타난다. 언제나 멧세지의 내용에는 깨우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설교에는 이와같이 멧세지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을 자라게 하고 완전케 하는 교훈이 있어야 한다. 구약시대의 설교에 있어서도 율례와 법도의 교훈적 설교⁹⁾ 가 있었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세례요한의 교훈적 설교¹⁰⁾, 예수님의 산상교훈¹¹⁾ 해변의 설교(마 13 장), 다락방의 강화¹²⁾ 등등의 교훈적 설교가 있었으며, 사도들의 설교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의 실천을 강조하는 교훈적 설교가 있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앞에 나왔을 때 저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성장시켜 천국 건설의 역군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디다케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케뤼그마’ 없는 멧세지나 ‘디다케’ 없는 멧세지는 다같이 반면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중 어느 하나에 편중한다는 것은 바람직

9) 신 6:1 ; 5~9

10) 눅 3:7~14

11) 마 5:1~7

12) 요 13:3~16

한 설교의 양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 구성원이 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적 설교에 있어서는 케뤼그마적 배경으로 하는 디다케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 대한 감사와 의무를 가르치며 윤리적인 순종과 사랑을 권면하여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어야 하며, 그들의 인격을 완성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설교는 항상 교리적 이어야 하며, 항상 윤리적 이어야 한다. 즉, ‘케뤼그마’와 ‘디다케’를 함축하고 있는 설교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케뤼그마가 하나님의 계시 자체라면 디다케는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교훈이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설교의 중요성

존 리처드 드 위트(John Richard de Witt)는 개혁주의 설교에 관해 말하기를 “나는 목회와 교회 생활의 입장에서 구별해 볼 때 그 모든 것은 말씀 선포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콕안런 박사는 말하기를 “설교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전하여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생의 길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고귀한 특권을 천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주셨으므로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다. 계시록에 보면 설교자들이 침묵을 지키게된 후에는 천사들이 이 특권을 취하리라 하는 것이 나온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진 특권이므로 신명을 다하여 이 천부의 특권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볼 수 있다. Emil Brunner는 진정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자 루터는 이러한 설교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죽음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도 임종 3일전까지 설교를 했던 것이다.¹³⁾ 화란의 반델 베흐트(W. H. der Vegt)는 그가 편집한 칼빈의 설교집 서문에 쓰기를 설교없이는 구원 없다”는 말을 함으로써 개혁교회에 있어서 설교의 중요성을 말한 바 있다.¹⁴⁾ 또한 독일의 칼빈 연구가인 니젤(Wilhelm Nissel)도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함으로 설교의 정의와 중요성을 동시에 말했다.¹⁵⁾ D. M. Lloyd-Jones 목사는 “말씀 증거하는 것이 교회와 교회목사의 최우선적 임무이며, 그의 모든 일은 이것을 보좌하며 매일 매일 이 일을 수행하는 외적 사역이다”라고 말하면서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참된 말씀 전파의 부흥은 언제나 교회 역사상 위대한 부흥운동을 가져왔고 교회사상 쇠퇴기에 빠진 시대는 언제나 말씀 전하는 것이 감퇴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이 말은 교회가 자기의 제 1

13)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서울:장신대학 출판부, 1986), p. 169.

14) 정성구, 「한국교회 설교사」, Op, cit, p. 11.

15) 정성구, 「실천신학개론」, (서울:총신대학 출판부, 1984), p.110.

차적 임무, 즉 설교 사역을 잘 수행해 나갈때 다른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개혁주의의 종교개혁은 사람의 전체적인 인생관과 행동면에 영향을 미쳤다. 종교개혁은 과학과 과학적 필요와 연구에 가장 큰 자극을 주었다는 것을 아주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다.

문화와 인간의 다른 활동분야에도 마찬가지로의 영향을 준것은 확실하다.

달리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알게될 때 사람은 자기가 무슨 능력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어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나라의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신앙적인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을때 마다 가장 위대한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봉사적인 입장에서 까지라도 말씀 전파를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Andrew Blackwood도 “설교는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로서 그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설교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Sangster는 “개혁교회 안에서 설교가 그 중심에 서게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며 또한 독립적인 자기 중심에 의해서 된것은 더 더욱 아니다. 그것은 계획과 신앙에 의해서 된 것이며 일의 논리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로서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이 전념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한 활동

이다 ” 라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설교가 기독교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잉태된 것이기 때문이며, 교회는 바로 설교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Ⅲ. 설교 역사에 나타난 시대적 설교의 특성

기독교는 처음부터 설교를 중요시하는 종교이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초대 교부들이 그러하였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학식과 웅변을 겸한 설교가 많았다.

그러나 일반교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많은 설교가 행하여졌던 것은 아니고 종교개혁 이후에야 오늘날과 같은 많은 설교가 행하여졌다. 종교개혁 전에는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전승속에 묶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교되지 못하고 하찮은 이야기 거리나 종교 윤리적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에 반해서 개혁자의 전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개혁자들의 설교는 언제나 성경이 기초가 되고 그것을 해설하는데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¹⁶⁾ 칼빈주의자들은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안다. 또한 설교를 통하여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항상 참된 설교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¹⁷⁾ 그러면 이번장에서 역사속에 나타났던 참된 설교들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6) 정성구, 「실천신학개론」, Op. cit., p.129.

17) Ibid., p.130.

1. 사도들의 설교

‘사도’ *αποστολος*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였던것 처럼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다.¹⁸⁾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이나 경험 또는 의지를 펼치기 위하여 나서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사도란 일정한 사명을 받아 보내는 자의 뜻을 펴 나가기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쳐 나가는 자들이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이 뜻한대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전 생애를 바치면서 복음의 역군으로 아름다운 기록을 우리 앞에 남겨 놓고 있다.¹⁹⁾ 우리는 그들이 남긴 소명의 확신과 설교의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 설교의 줄기를 다시금 다짐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사도들은 스승의 명령대로 한 마음으로 모여 성령의 임재를 기도속에 기다렸고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더 이상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²⁰⁾ 그리고 그 소명의 참 뜻을 깨닫는 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18) 「신학사전」, Op. cit., p. 274.

19) 정장복, Op. cit., p. 16.

20) 정장복, Op. cit., p. 16.

둘째로, 사도들의 설교에서 나타난 멧세지의 내용과 그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생애와 교훈과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으로 부터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가 심판주로 다시 오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 예수가 지금껏 기다린 메시아이며, 그의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도래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단순한 복음을 외쳤다.²¹⁾

세째로, 사도들의 설교가 진행되었던 영역에 대한 면모를 살펴보면 그들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예수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여 사마리아와 다메섹 그리고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로 복음의 선포는 확산을 거듭하였다. 때로는 개인 가정집을 사용하기도 했고 회당이나 건물을 빌리면서 복음의 선포사역은 쉬임없이 계속되었다. 바로 이때부터 복음은 국한된 지역적 복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인류의 복음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네째로, 설교자로서의 사도들의 자세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야 할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순교적 자세로 복음의 선포에 임하였다. 최초의 순교의 기록을 남긴 스테반의 경우를 비롯하여 갖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속에 헤쳐 나가야 했던 사도들의 설교 행진 속에서 위대한 결단의 발자욱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복음의 선포는 “부득불 할 일임이라”는 말과 함께 이

21) 정장복, Op. cit., p.17.

일을 성실히 준행하지 못할 때 “내게 화가 있을것”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순교적 자세를 밝히고 있다.

끝으로, 사도들은 순간적인 환상이나 계시로 맺세지의 근거를 삼지 아니하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수용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그들은 믿음과 설교의 연관성을 굳게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된 복음을 들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 발생된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무리마다 복음의 확산 작업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도들의 설교는 오늘의 교회가 믿음을 갖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²²⁾

2.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

흔히 종교개혁은 구교의 부패와 교황권의 남용에 대한 항거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종교개혁은 바로 강단의 회복이며, 설교의 회복이다. 약 1천여년 동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에서 의식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 우리가 흔히 중세기를 암흑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라져버린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밤이 깊을 수록 별빛은 더욱 찬란하듯이, 어두운 시대에 15세기 부터 서서히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의식적인 종교에서 말

22) Ibid., p. 18.

씀의 종교, 생명의 종교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6 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자들의 첫 작업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그대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개혁자들의 예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았다. 종교개혁이 성경에 대한 재발견이었다면 이 성경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운동은 강단을 통한 말씀전파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개혁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감당해냈다. 예컨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방은 주일날에는 두번 또는 세번의 설교가 있었으며, 주중에도 여러차례의 설교가 있었다. 어떤때는 설교자들이 한주간 연속으로 설교했다. 마치 한국 교회의 부흥회와 비슷하게 한주간 동안 설교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말씀 전파의 불길은 성경의 재발견과 때를 맞추어 확산되었을 뿐아니라 성경에 대한 새로운 번역의 시도가 동시에 일어났기에 말씀 증거의 설교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혁파적 설교는 강해설교로 특징 지을수 있으며, 그것은 달리 말하면 케리그마적 설교라고 할 수 있다.²³⁾

개혁의 주역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루터(Martin Luther), 쾰링글리(Huldrych Zwingli), 칼빈(John Calvin), 그리고 낙스(John Knox)와 같은 설교가들을 들수 있다. 이들은 오늘의 개신교가 있도록 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다한 설교가들이었으며, 동시에 개

23)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91), pp.126 ~ 127.

혁가들이었다.²⁴⁾

이 개혁가들의 설교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미사를 지적하면서 초대 교회처럼 말씀과 성례전이 동반된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예전의식이란 단순한 마술적 연기에 불과함을 공격하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전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설교를 예배의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²⁵⁾

둘째, 그들의 설교는 사도들의 설교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를 외쳤다. 그리고 그 수난과 부활의 의미와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지극히 단순한 복음의 전달에 전심을 다하였다.²⁶⁾

셋째, 설교 사역은 목사의 가장 일차적인 사명임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목사라는 직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실된 입이라”는 개혁가들의 확신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서 또는 말씀의 대언자로서 불리우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전달자로서 오늘의 회중앞에 서야한다는 사명의 확신을 재다짐하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설교의 절대 중요성이 확보되었고 회중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역사가 발생하였다.

24) 정장복, Op., p.24.

25) Ibid., pp. 24 ~ 25.

26) Ibid., p.25.

네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은총의 전달은 말씀과 성례전과 성령의 3대 방편을 사용하시며 그것이 오늘의 역사가운데서도 계속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설교가 단순히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발로가 아님을 가르치면서 설교자의 소명의 필연성을 재다짐하였고, 설교자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쳤다.

다섯째, 개혁가의 설교는 결코 사변적이거나 수사학적인 능변에 의존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고 직선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현장의 인간들이 이해하는 말씀의 전달에 노력하였다. 그러한 정신은 지금까지 라틴어의 그늘속에 가려온 성경말씀을 회중들의 모국어로 옮겨놓는 열심에서 나타났을 뿐만아니라 그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해석해 주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려는 뜨거운 열정에서 충분히 찾아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이땅에 정착되었으며 그 결실은 신속하게 맺어질 수 있었다.

끝으로, 설교의 역사에 개혁가들이 남긴 유산은 설교의 바른 정신과 그 방향을 정립하였다는 사실이다. 개혁가들이 남긴 설교의 형태와 내용과 전개는 후대 설교가들의 살아있는 귀감으로서 설교의 본질을 지키게 하였음에 틀림이 없다.²⁷⁾

3. 청교도의 설교

종교개혁기는 설교의 위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 시기였다. 수십세기

27) Ibid., pp. 25 ~ 26.

동안 망각의 그늘 아래 묻혀진 설교가 등장하면서 지상의 하나님으로 군림하던 교황청이 흔들리고 그들의 견고한 성으로 영원을 자랑하던 도처의 교회들이 개혁의 홍수에 휘말릴때 카톨릭 교회마저 설교의 소중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²⁸⁾ 하지만 이렇게 개혁당시 빛을 발했던 설교가 17 C에 들어서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7 C의 영국에서는 문학적 산출은 대단했으나, 도덕성은 극히 빈곤했고²⁹⁾ 영국국교는 마치 과거 중세기의 로마 카톨릭과 같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교직자의 대부분은 성경을 배우지 않고 다만 계속적인 것을 설교하는 자들이 많았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크게 힘쓴 훌륭한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다. 청교도들의 설교는 우리세대에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던 모든 사람들이 남긴 유산의 일부이다. 청교도의 설교자들 가운데 주로 유명한 설교자들은 영국, 스코틀랜드, 뉴잉글랜드에서 활동했다.³⁰⁾ 그러면 청교도들의 설교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청교들의 설교의 특징은 그것이 17 세기의 것이든 혹은 그 이후의 것이든, 단순하고 꾸밈이 없고 명백한 스타일이라는데 있다.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는 그의 저서 ‘Resolution’에서 “순수하고 간결하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³¹⁾ 청교도의 설교의 스타일은 순수하

28) Ibid., p.27.

29) 헨리 G 브라운, 「설교의 구성론」, 정장복역, (서울:양서각출판사, 1984), p.50.

30) 기독교대백과사전, 제 8 권, (서울:기독교문사, 1983), p.1178.

31) Ibid., p.1179.

고 꾸밈이 없는 것이었으며, 지적 수준에 있어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것이었다.

둘째, 청교도들의 설교의 강조점을 살펴보면, 신실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전체 뜻”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대부분의 설교에서 반복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은총이었다.³²⁾

세째, 청교도들의 설교의 구조는 급하게 작성되는 인위적인 소산이 아니었다. 한편의 설교가 강단에서 외쳐지기 위해서는 확고하고 신중한 생각과, 또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어가는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였고, 그들이 항상 무엇인가 기록해 놓는 습관은 너무나 유명하다.³³⁾ 그들의 설교의 구조는 이미 설교학 해석학 교사들이 규정해서 정선했던 방법을 따랐다. 설교의 확고한 구조가 청중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있어서 강단은 어떠한 경쟁자도 없었으며, 설교는 그 주일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³⁴⁾

이러한 개혁의 바람이 영국의 땅에서 거세게 일던 17세기의 후반까지 영향을 끼쳤던 청교도 설교가들로서 설교의 역사에 기록해 두어야 할 인물들로서는 다음의 두 설교자들을 들 수 있는데 먼저 당시의 정치적 분열과 교회의 갈등에서 벗어난 혼돈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리차드 박스터(Richard Baxter, 1615~1691)

32) Ibid., p. 1178.

33) Ibid.

34) Ibid.

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천로역정의 저자로서 청교도들의 신앙의 청경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지배층을 향한 예언자적 설교때문에 설교의 금지령을 받기도하고 감옥 생활도 감수해야 했던 존 번연(John Bunyan)이 17세기의 끝부분을 장식한 설교자이다.³⁵⁾

이상에서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시대, 청교도시대의 설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지나간 세월의 흐름속에서 설교의 위대성은 역사적 발자취마다 그 흔적을 남겼다고 할 것이다.

A. W. Blackwood도 말하기를 설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초대교회, 중세시대, 종교개혁의 시대들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설교역사에서 살펴볼 때 설교가 성경을 떠나서 전설이나 전통 및 지식주의 철학사상에 기울어질 때 또는 세상 습관이나 제도에 치우칠 때 교회가 타락하며, 올바른 설교가 선포될 때 교회가 부흥하며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최근의 설교동향

최근의 설교의 흐름은 교회성장의 활기에 힘입어 성경 본문을 중요시하는 강해설교의 방법이 발전되고 있다.

우리시대의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로서 칸 빨트, 부트릭(G. A. Buttrick), 존스(E. De Witte Jones), 마이어(W. A. Maier), 레이드(James Reid), 슈튜아트(J. S. Stewart) 등 많은 분들이 있다.

35) 정장복, Op. cit., p.29.

이외에도 영국의 자유교회에는 유능한 설교자들이 많았으며, 1974년 부터 1980년까지 켄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도널드 코건(Donald Coggan)은 영국교회의 설교회복에 큰 자극을 주었으며, 그는 반세기 동안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즐거운 전제정치하에” 지내왔다고 말할 정도로 능력있는 설교자였다.³⁶⁾

설교자 대학(College of Preacher)이 영국에서 세워진 것은 그의 발의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는 「은혜의 청지기」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의 기적이 있다. 하나님의 용서와 죄 사이에서 있는 설교자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준비와 인간의 필요 사이에서 있는 자가 곧 설교자이다. 인간의 죄를 용서에,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의 전능에, 인간의 탐구를 하나님의 계시에 연결시키는 것이 그 과업이다”라고 했다.

자유교회에서는 1938년부터 1968년까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맡아서 설교해온 마틴 로이드 존스(Martin Lloyd Jones) 목사이다. 그는 주일날에 자신의 강단을 떠난 일이 결코 없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전 세계에 미쳤다. 그는 본래 의사였으나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포로가 된 후 그는 열정적으로 50년대 60년대까지 가장 힘있는 설교자였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한 「목사의 설교」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혀지고 있고 그의 강해서가 그후 많이 출판되었다.

36)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p. 189.

그리고 존 스타트(John R. W. Stott) 목사도 오늘의 영국을 대표하는 목사로서 그의 책들이 한국에 번역되고 있다.

그외에도 라브리 운동의 기수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 최근 미국의 쉘스미스(C. Smith), 존 맥카드(John Mac Ath-er), 찰스 스윈돌(Charles R. Swindoll) 목사 등도 강해 설교자로 성공해서 수천 수만명의 성도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강해설교를 통해서 미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³⁷⁾

이상의 2000년 기독교의 설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기서 결론짓고 싶은 말은 어느때 어느곳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바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와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고, 교회가 교회 다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7) Ibid., p.190.

Ⅳ. 개혁주의적 설교의 원리

1. 예배에 있어서 설교의 위치

기독교적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예배의 핵이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규명치 않는다면 찬송을 부르지 않음이 좋고 성경을 읽지 않음이 좋으며 또한 전혀 보이지 않음이 좋다.”고 했다. 예배에 있어서 기도나 성경봉독, 아니 집회 그 자체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명하고 선포하는 설교가 없다면 무익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구원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만 예배는 예배로서 가치가 존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³⁸⁾ 이러한 진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그 큰 희생으로 발견한 진리이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진리가 무시되는 경향이 보인다. 성경을 되도록이면 짧게 봉독하고, 또한 설교를 매우 짧게하고 여러 가지 순서들을 예배에 포함시켜 예술적인 분위기를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³⁹⁾ 여기에 대해 존 스타트 목사는 “짧은 설교는 단명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만다.”⁴⁰⁾ 고 우려하고 있으며, P.T.FO-

38) 이주영, Op.Cit., p. 36.

39) Ibid., pp. 36 ~ 37.

40) 존 스타트, 「현대 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서울:풍만출판사, 1985), p. 16.

rsyth도 “일부 기독교인이 짧은 설교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말씀을 전파하는 작업에 가장 파괴적이며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이다.”고 했다. 이러한 설교 경시 경향은 기독교의 타락을 보여주는 일면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에서 성경을 중히 여기는 습관과 설교를 중히 여기는 기풍이 흐려질 때는 세속적인 종교단체의 일종 또는 그룹의 모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⁴¹⁾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설교자가 먼저 설교의 본연의 자세를 확립함으로 설교에 관하여 흔들리고 있는 확신을 튼튼히 하고 설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무너져 가고 있는 성경과 설교의 권위가 다시 확립될 것이고,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설교에 대한 반론들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설교자 자신이 회중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도 확신있게 증거하지 못한다면 누가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으며, 그 설교를 권위있는 설교라 하겠으며,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하나님은 그의 행동과 말이 기록으로 보존 되도록 하셨으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유성으로 능력있게 말씀하시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과 교회의 침체와 부흥이 말씀 선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⁴²⁾

41) 이주영, Op. Cit., p. 37.

42) 후등광삼, 「설교학」(서울:해문사, 1979), pp. 139~140.

2. 설교의 기초

개혁주의적 설교를 위한 기초는 “성경으로만”(Scriptura Sola)이란 말과 “성경 전부로”(Scriptura Tota)이라는 어구에 의해 적절히 묘사된다. 기독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선포해야 한다.

1) 성경만 설교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목회방법은 무슨 별스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주의 설교가는 그의 멧세지를 캐내는데 있어서 성경의 범위를 넘어가는데 대해 아무런 거리낌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초자연적 영감과 성경적 계시의 특이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⁴³⁾ 그들은 또한 기독교설교자들은 말씀만을 설교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⁴⁾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러한 그들의 원칙에 동의할 수가 없다. 설교자는 성경을 해석해야 하며,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본문을 해석하는데 각별하게 신중을 기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⁴⁵⁾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는 성경 말씀들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큰 소리를 내어 읽어 보기도 하고, 다른 번역

43) 정성구, 「설교학 개론」, Op.Cit., p. 463.

44) 이주영, Op.Cit., p. 39.

45) 정성구, 「설교학 개론」, Op.Cit., pp. 463 ~ 464.

판과 대조해 보기도 하고, 원전을 참조해 보기도 해야 한다.

여하튼; 항상 그 성경 말씀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⁴⁶⁾ 그러할 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그 말씀만을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해야 한다는 원칙이 설교자가 성경의 가르침을 청중의 특이한 요구와 그 시대의 특이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설교에서 성경의 해석은 그 자체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⁴⁷⁾ 성경은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서 성경은 시대를 영구히 초월한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관하여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감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주신 해결책들만을 제시해야 하고⁴⁸⁾ 목사의 경험이나 종교의 의식을 설교의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Scriptura Sola 라는 설교 원칙을 처음부터 위반하는 것이 된다.⁴⁹⁾ 그리고 모든 설교가 그러하듯이 교리적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지 설교가 신조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된다.

46) 윌리암 스튜드랙, 「예배에 있어서의 설교」, 차원호 역(서울: 소망사, 1985), p. 75.

47) 정성구, 「설교학 개론」, Op.Cit., p. 466.

48) Ibid., p. 467.

49) Ibid., p. 471.

2) 성경 전부를 설교해야 한다.

칼 바르트(K. Barth)와 바르트주의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경험의 기록에 불과하다는 자유주의적 견해에 대하여 단호히 성경으로 돌아 가려는 입장을 취한 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은 성경에 수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은 정말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오류가 있는 인간인 예언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씀이 둘다 담겨 있다고 한다.

여기에 맞서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은 “성경 전체”를 유일무이한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 전부를 설교해야 한다는 설교원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은 신·구약이 분리될 수 없는 유기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설교는 이 두가지를 다 기초해서 선포해야 하며, 구약과 신약을 항상 동시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지 말고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역사적인 것으로서 선포해야 한다. 또 복음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과, 여기 이제 땅을 밟고 걷는 길, 둘다를 지적하고 있다. 이 둘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복음의 차안성과 피안성 사이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선포해야 한다. 확실히 설교자는 인간이 죽을 때에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과, 매일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둘을 다 선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이어야 한다.⁵⁰⁾

설교의 기초는 성경이므로 설교는 근본적으로 성경을 떠나 다른 자료들에 기초하여, 성경을 단지 자기의 주장을 지지하고 설교자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인용문 정도로 여겨서는 안되며,⁵¹⁾ 설교자가 좋아하는 어느 특정 부분만을 설교해서도 안되며,⁵²⁾ 성경 전체를 설교해야 한다.

3. 설교의 목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교는 설교자 자신의 사상이나 관념 등을 표현하는 웅변이나 연설과는 다른 것으로서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리차드는 설교의 목적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영혼과의 개인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며 “설교자는 반드시 청중들이 자기들의 삶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환영을 피할 수 없도록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피어슨은 설교에는 3 가지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선포(Proclamation)와 실증(Demonstration) 그리고 고취(Implantation)라고 하면서 “설교는 이

50) 이주영, Op.Cit., pp. 43 ~ 47.

51) 임택진, Op.Cit., p. 120.

52) 존 스타트, 「설교자 상」, 문창수 역 (서울: 한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7), p. 25.

해심 확장과 결심의 강진을 구하며 마음의 청결과 생활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하기를 “남녀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설교의 목적을 잘 언급해 주었다. 존 스타트 목사는 “설교는 다리 놓기와 같다.”고 하면서 문화적인 격리된 간격, 즉 성경의 세계와 현대 세계 사이의 깊은 간격을 매꾸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설교의 목적에 대한 주장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통된 몇 개의 목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존 브라더스의 견해를 소개하면, 첫째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헤드리는 것이며, 두번째는 영혼의 구원이며, 세번째는 설교자는 또한 그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도 되고 회중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⁵³⁾

4. 성경 해석 방법

성경해석 없이는 설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바른 성경해석이 있을 때에 바른 설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⁵⁴⁾

1) 성경해석자로서의 설교자

모든 설교자는 성경해석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설교자가 될 수 없다. 물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사도바울은

53) 정성구, 「설교학 개론」, Op.Cit., pp. 96~97.

54)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총신대학 출판부) p. 316.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고 하였다. 말씀을 옳게 분변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일진대 그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신학과 신앙의 방향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즉 어떤 신학적 입장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성경 해석자들의 원리는 성경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는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해석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그것은 또한 다른 해석의 결과를 낳게도 되는 것이다.⁵⁵⁾

개혁교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경의 명백성을 가르치며, 누구든지 성경을 가르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면서도 성경 기록자들은 그들의 개성과 환경과 문체, 논리전개 방식 등을 모두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언어, 문화, 역사, 생활의 양식과 습관, 사회의식 등이 있다. 그런데 설교자와 청중은 오늘의 정황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때와 지금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은 필요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설교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에 증거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John W. Stott의 말과 같이 두 세계 사이에 다리놓기 작

55) 정성구, Op.Cit., p. 316.

업이 필요한 것이다. 성경 해석은 성경의 금광을 캐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른 신학과 신앙위에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배운 목사가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성경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사실 설교자는 하나의 전달자이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옮기는 자이다. 뿐만아니라 설교자는 실상 외국어로 된 성경에서 이 메시지를 찾기 때문에 그는 번역자가 되어야 한다.⁵⁶⁾ 설교자는 말씀을 해석하고,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선포의 과정에 이르기 때문에 설교자 특히 성경 해석자이어야 한다.

2) 설교자의 성경해석 방법론

최근에 성경해석 학에는 본문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풀이하는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역시 누가 어떤 입장에서 해석하는지 해석자 자신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 해석자의 신학, 인생관, 세계관 등이 어떠한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의 작업도 단순히 글자 풀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아야 한다. 성경해석자는 우선 그 자신이 신령한 생활을 하는 자여야 하며, 갈급한 심정과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적 동기와 소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성경 해석자는 신학적인 소양과 성경 원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⁵⁷⁾

(1) 문법적 해석방법

성경 해석에의 일차적 접근은 성경이 쓰여진 대로 의 언어와 문법

56) 정성구, Op.Cit., p. 317.

57) 정성구 Op.Cit., pp. 319 ~ 320.

을 연구하는 단계이다. 즉 본문에 쓰여진 대로의 동사 형태나 낱말의 전후 관계 등을 문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해석자가 주관적으로 무리한 해석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문법적인 해석은 성경 저자의 용어와 습관을 바로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우선은 성경 저자의 언어와 문법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오늘 해석자가 그때의 저자의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다. 문법적 해석 곧 자의적 해석의 전제는 첫째로, 한 단어 또는 문장을 한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는, 어휘의 정확한 뜻을 사전류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셋째로 문법을 이해할 때 동사의 시상이나 대명사, 격변화, 접속사 등을 살펴 보아야 한다. 넷째는 한 문맥 속에서 단어의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⁵⁸⁾

(2) 역사적 해석방법

이 방법은 본문과 관련된 시대나 환경의 배경을 조사해서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이해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데 그 계시는 역사 속에서 되어졌고, 그 계시는 인간과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된 구체적인 시대의 반영이 있고, 그 당시에 작용하고 있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영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절과 구절, 각 장들 사이, 책들과 책들 사이, 역사적 언급은 역사

58) 정성구, Op.Cit., pp. 320 ~ 321.

적 언급의 다른 곳과 비교함으로써 성경을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59)

(3) 교리적 해석방법

교리적 해석방법은 달리 말해서 신학적 해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말한대로 설교자가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어떤 신학적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는 신학의 문제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교리적 해석방법 즉 신학적 해석 방법은 문법적, 역사적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이 성경의 해석자라는 근거에서 출발하게 된다. 60)

(4) 신앙적 해석방법

성경해석은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성경해석을 하는 설교자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있을 것이므로 모든 성경해석이 규격화하거나千篇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성경은 “내게” 대한 하나님의 설교다. 그러므로 설교는 제 삼인칭의 입장에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마주 앉아서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제 2인칭의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역사와 사건과 인물을 뛰어넘어 곧장 내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설교자가 들어갈 공간을

59) 정성구, Op.Cit., p. 326.

60) 정성구, Op.Cit., pp. 322 ~ 323.

갖게 되는 것이며, 바로 이 부분이 성경해석의 주관적인 부분을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성경에 대한 신앙적 해석 또는 영적 해석의 가능성의 길을 터 놓은 것이다.⁶¹⁾

(5) 사회학적 성경해석법

최근에 이르러 대두된 이른바 성경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방법이다. 엘리엇(J.H.Elliott)가 제시한 사회학적 해석의 전제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경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담은 그릇들이며 그 소산으로 간주한다. 즉 성경은 역사 속에서 고립되고 고정된 순간들을 기술한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행동들이나 운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학적 해석은 성경에서 여러번 되풀이 되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로, 성경 본문과 그것이 대표하는 어떤 전망들이 사회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로, 성경 본문을 결정지어 주는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보다는 간접적으로 선택하여 언급한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건들이나 사회적 규범들 종교적 상징들로부터 귀납적으로 사회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다섯째로, 전통적인 삶의 정황이나 상관관계나, 동기나 목적의 문제 보다는 상황과 전략의 상관관계에 더큰 관심을 둔다. 여섯째로, 성경은 저자들 자신만을 위해서 말할 뿐만아니라 특정 집단의 사회적 관심, 조직적 구조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61) 정성구, Op.Cit., p. 329.

일곱째로, 집단적 관심들이 초대 기독교 이념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여덟째는, 성경해석자 자신들의 사회, 심리적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해석한다.⁶²⁾

(6) 구속사적 성경해석법

구속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속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신학적 입장이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은 통일성과 점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레다누스(S.Greidanus)에 의하면, 구속사적 설교 논쟁이 화란에서 1935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말한다.⁶³⁾

62) 정성구, Op.Cit., pp. 333 ~ 335.

63) Ibid., pp. 337 ~ 338

V. 설교와 설교자

설교에 대한 거의 모든 정의는 설교자를 포함하고 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좋은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설교의 2대 요소로서 우리는 메시지와 설교자라는 인격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설교자란 좋은 메시지만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메시지가 아무리 개혁주의적 원리에 입각한 훌륭한 설교일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인격에 허물이 있거나 감화의 힘이 없다면 그러한 설교는 설교로서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⁶⁴⁾ 사도바울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였다.⁶⁵⁾ 그렇다면 효과적인 설교자를 위한 필수 조건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소명감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는 단지 전문적 직업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목사는 신성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울은 선언하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다.(롬 1 : 1) 스피존 (Spurgeon)

64) 이주영, op. cit., p. 10.

65) 딤후 2 : 15

은 주장하기를 “나는 바울과 같이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모든 참 설교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설교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⁶⁶⁾ 다시 말해서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의 대사로 나서려면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성스러운 직분에 덤벼들면 주께서 그와같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곧,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렘 23:32). 하는 말씀을 들을 뿐이다.⁶⁷⁾ 누구나 자기 직업에 실패한다는 것은 무서운 재앙이지만 목회자가 교회를 상대로 저지르는 실수처럼 가슴 아프게 하는 고통거리도 없다.

그리스도인의 목회직이라는 우리의 소명에서 저질러지는 실수는 거의 무한대의 악영향을 끼친다.⁶⁸⁾ 그래서 스피전은 소명을 받았느냐에 대한 증거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한다.⁶⁹⁾ 첫째, 그 일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욕망이다. 이 욕망은 신중하고 사심이 없어야 하며 지속적이어야 한다. 둘째, 가르칠 만한 소양과 그밖에 여러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필요한 다른 자질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셋째, 자신의 노력의 결과 어느정도 회심 운동이 전개 되는걸 보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 설교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오직 설교는

66) 정성구, 「설교학 개론」, op.cit., pp. 51 ~ 52.

67) 찰스 스피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I」, 이상태역(서울;생명의 말씀사, 1983), p. 36.

68) Ibid., pp. 40 ~ 41

69) Ibid., pp. 41 ~ 48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잡힌 사람이 해야하는 것이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소명감에 차있는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다.

2. 생동적인 기독교의 체험

효과적인 설교자가 되기 위한 둘째 요소는 살아있는 기독교의 체험이다. 대개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영적 경험이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을 무디고 냉랭하게 자라도록 방임한다. 설교자는 그 자신의 설교를 경청함으로써 그의 경험을 실제로 간직할 수 있다. 또한 설교자는 공중예배나 개인 예배에 참석해야 하며, 그의 이웃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돌봐야 한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여야 하며, 교회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 목사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참된 설교”가 나오는 것이다. 사무엘 맥콕은 다음과 같이 심오한 진리를 언급했다. “어떤 유창한 웅변이나 우아한 태도, 그리고 설교학의 기술로 영적인 실존의 생동적이고 내적인 경험의 결핍이나 손실로 보상할 수 없다.” 불과 같은 열정의 설교자였던 조지 화이트·필드 (George White field)는 정규적으로 기도하기를 “오! 주님, 제게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설교자에게 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⁷⁰⁾

70) 정성구, 「설교학 개론」, op. cit., p. 53.

3. 계속적인 연구

효과적인 설교자를 위한 셋째 필수 요건은 지식의 확대이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않고 권능에 있다고 한 성경의 언급을 강력하게 주장한 나머지 설교자가 연구에 등한히 하는 일이 허다한데, 영국의 저명한 변호사 보렌(Lord Boren)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사건은 가끔 서재에서 판가름 난다.” 이 말은 법률가에만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다.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강단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어느정도의 부단한 연구가 투입되었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교자의 서재에는 성경의 심층적 연구를 위한 서적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성경 원전, 성경 주석, 그리고 성구 사전 등이 필수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목회학, 설교학, 사회학, 선교학, 철학, 역사학 등 다방면의 서적들을 준비하여 연구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정신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목회는 상담에 관한 분야에 대해서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담을 위한 많은 참고자료가 유형별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4.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함

효과적인 설교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은 성령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성령은 기독교인의 삶에 역사하시므로 회개, 믿음, 성숙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은 성경 연구를 인도하고, 본문을 선택하고, 자료의 선택과 준비를 인도하신다. 성령은 설교에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만이 영적인 승리를 주는 것이다. 언제나 성령은 설교자의 끊임없는 지원자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임재하지 않는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 7 : 11)。 존 칼빈은 강단에 올라 섰을때, “오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려서 누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주었다.⁷¹⁾

이러한 요건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멧세지의 더욱 더 효과적인 통로자가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이 그 말씀에 포로가 된 후에 그 말씀을 전해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설교자가 사람의 노력과 열심을 초월하여 성령에 의해 쓰임을 당해 그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는 위치에서 설교사역을 수행하도록 성령을 통해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인 것이다.⁷²⁾ 설교자는 단지 도구요, 통로이며, 수단일 뿐이다. 성령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시고 계시고 설교자는 큰기쁨과 놀라움을 가지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청중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들은 사로 잡히고 심각하게 되어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감동되며, 겸허해 진다. 어떤이들은 죄를 깨닫고 다른 이들은 하늘의

71) 정성구, 「설교학 개론」, op. cit., pp. 55 ~ 56.

72) D.M. Loyd-Jones, 「성령론」, 홍정식 역 (서울 : 새순출판사, 1986), p. 326.

은혜를 맛보는 것이다.⁷³⁾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성령을 구하고 찾아야 한다. 성령은 참된 설교를 만든다. 그것은 오늘날 모든 것 중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아무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⁷⁴⁾ “네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과 그 능력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개혁주의 설교가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알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설교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생을 크게 변화시키고 될 수 있는 것이다.

73) Ibid., p. 343.

74) Ibid., p. 344.

Ⅵ. 현대 설교의 문제점

앞서 설교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 보았으나, 여기에서는 설교의 문제점과, 무엇이 설교가 아닌가를 살펴 봄으로 설교를 보다 더 심도 있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속화된 세상이다. 모든 권위가 부정되고, 교회 자체까지도 부정하는 시대이므로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도 한국교회는 아직도 부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부흥을 지상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강단의 세속화를 부채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사람들은 점차 설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고, 설교자들은 잃어버린 흥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가 아닌 것을 설교인 것처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⁷⁵⁾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D.M.Lloyd - Jones)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지적했다. 즉 설교 사역이란 어떠한 소명보다도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런 소명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의 기독교회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진정한 설교이며 그것은 역시 세상이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설교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부정하는 세속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설교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75)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op.cit., p. 203.

우선 설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알아 보면

첫째, 설교는 교육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설교는 선포이며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다. 물론 설교의 기능 중에 교육적인 요소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설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운동이며, 교육은 지식운동이다. 요즈음 한국교회의 현상 중의 하나는 성경공부 연구봄이 교회 안팎으로 일고 있는 것은 실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성경연구가 설교를 대신할 수 없고 성경연구를 통해서 지식 만족을 얻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 설교를 듣는 일을 무시하고 성경연구에 주력하는 것도 자칫 주관주의적 오류에 빠질 소지가 많다. 76)

둘째, 설교란 설교자가 인생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해서 평론을 내리는 것을 설교라고 하지 않는다. 설교는 설교자의 권위 저쪽의 문제이다. 즉 변호사가 변호할 때 그 배후에는 국가와 법이 있듯이 설교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등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설교일 수가 없다. 77)

셋째, 설교는 신학적으로 건전해야 하고 신학 강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설교에도 교의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지만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설교일 수가 없다. 78)

76) Ibid., P. 204.

77) Ibid.,

78) Ibid., pp. 204 ~ 205.

넷째, 설교란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을 해설하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물론 설교에는 도덕적 교훈이 빠질 수는 없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이 없는 도덕적 설교는 온전한 설교일 수가 없다.⁷⁹⁾

다섯째, 설교는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것만이 주제가 되는 것은 설교일 수 없다. 물론 설교는 오늘의 정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특정 정치가를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는 내용은 설교일 수가 없다.

여섯째, 설교시에 어떤 혁신적이고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교해서는 안된다. 가령 정부의 정책 홍보나 사회적 캠페인을 주제로 해서 설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케리그마적 설교는 못된다.⁸⁰⁾

일곱째, 어떤 특정한 사건을 두고, 특정한 인물을 비방 또는 예찬하는 일도 진정한 설교일 수 없다. 물론 설교자는 청중들이 안고있는 진리와 비진리 또는 비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사이에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증거해야 한다. 위에서 무엇이 설교가 아닌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이는 설교의 금기사항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참된 설교가 아닌 것이 무엇임을 밝힘으로써 설교의 참된 의미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와서 교회 성장과 부흥을 강조하다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정한 설교자보다 화술이나 웅변술이 좋

79) Ibid., p.205.

80) Ibid.

고 연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취향에 맞게 인용하면서 청중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리기도 웃기기도 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자들도 있다. 이러한 강단꾼들에 의해서 강단이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특히 설교를 예배행위로 보지 않는 태도가 큰 문제로 한국교회에 대두되고 있다. 설교는 간증일 수도 없고 체험담을 말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집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선포 이외의 방법을 은혜의 수단으로 쓸려고 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신학적인 문제이다.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무지로 지나친 경험주의, 주관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편의주의가 한국교회의 강단을 병들게 한다.⁸¹⁾ 기독교의 참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의 생명이요, 희망이요, 심판이며, 능력임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⁸²⁾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요, 전부인 것이다.

81) Ibid., pp. 205 ~ 206.

82) 유부웅, 「성서적 설교와 한국교회 강단」, (서울:문장출판사, 1984), pp. 111 ~ 112.

VII. 개혁주의적 설교로서의 강해설교

오늘날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설교는 강단에 도전하는 세속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연히 서서 적그리스도적이고 종교 혼합주의적인 현상에 대항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성경적 설교이다.

칼빈은 신앙의 방패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말씀없이 는 신앙도 없다.”⁸³⁾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당신을 알게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주셨다.”⁸⁴⁾ “성경 없이는 모두 오류에 빠진다.”⁸⁵⁾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지 않는 곳에는 더 나은 찬송도 없고 더 나은 성경 봉독도 없고 예배를 위해 모일 필요도 없다.”고 하여 오직 성경에만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⁸⁶⁾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는 영의 양식을 업신여기는 자마다 굶어 죽어 마땅하다.”⁸⁷⁾고 한 존 칼빈의 말은 오늘 한국교회를 깨우치는 예언자적인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앞의 여러 장들에서 올바른 개혁주의적 설교는 철저히 성경적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설교의 원형은 강해 설교라고 말할

83) 존 칼빈, 「기독교 강요」Ⅲ, 김문제 역(서울:세종문화사, 1980), p. 104.

8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I」, p139.

85) Ibid., p143.

86) 정용섭, 「교회갱신의 신학」(서울:대한기독교 출판사, 1979), p. 81.

87) 존 칼빈, 「기독교 강요Ⅷ」, op. cit., p. 5.

수 있다. 강해적 설교형태는 내용의 거의 전부가 성경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강해적 설교 방법이란 성경 연구에 새롭고 심신하게 이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은 각 본문안에 존재하는 설교의 기초를 발견하는데서 출발하여 한 책이나 한 장의 전체 의미를 찾아 내도록 전개되어 나간다. 적당한 길이의 본문이 택해지고 그 본문의 간결성 보다는 그 통일성에 더 관심이 있다. 통일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내용에 비추어 본문을 상세히 연구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본문의 중심사상을 설교의 주제로 삼는다. 성경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각 부분이 합하여 완전한 조화로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설교 방법은 없다.

성경의 각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이며, 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종합하는 것이다.⁸⁸⁾ 그러면 강해 설교의 기본 원리와 유익성,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한다.

1. 강해설교 준비를 위한 기본원리

① 어느 구절이든지 좀더 신중하게 연구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 본문의 중심 사상을 얻어야 한다. 하나의 구절에서 중심적인 사상을

88) 정성구, 「설교학 개론」, op. cit., pp. 459 ~ 561.

발견해 내는 것은 강해설교의 첫번째 작업이다. 중심사상을 포착하기 위하여 열심히 그 본문을 연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포착된 중심사상을 전개할 때 단순화 시켜야 한다.

② 본문 중에서 중요한 단어나 귀절을 발견하고 대지를 형성해야 한다. 본문의 여러 귀절 중에서 그 내용 전체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할 수 있는 귀절이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설교자가 이러한 귀절을 설교함으로써 청중들이 쉽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파악하여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설교학의 원칙에 입각하여 변화를 부여한다. 강해 설교는 단순히 본문에 대한 강해로써 그쳐서는 안되고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처음에 강해를 끝내고 다음에 이를 응용한다.

나) 각 대지를 설명한 후 다시 응용한다.

다) 강해와 응용을 결합하여 조화시킨다.⁸⁹⁾

④ 구절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라.

면밀히 본문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연관성, 문맥상의 고찰 등을 연구하여 이런 자료들이 성령을 통하여 생명력 있게 뒷받침하고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⑤ 항상 성경적으로 전개하라.

영거 교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설교자의 알파요, 오메가이다.”라고 했다. 모든 설교가 그러해야 하듯이 강해 설교에 있어

89) 박안련, *op. cit.*, pp. 207 ~ 208.

서도 인물의 전기 등은 성경의 복음진리를 증거하는데 이용될 뿐이다. 설교자의 목적은 강해 설교로서 성경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다.

2. 강해, 설교의 유익성

영거는 “설교자의 기본적 사명은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강해 설교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개혁주의적 설교이다. 몽고메리(R. Amos Montgomery)는 설교자의 목적은 “강해설교로 성경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침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강해설교는 성경 교육적 설교인 것이다. 그러므로 강해 설교는 성경이라는 고전에 대한 연구 발표가 아니고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이다.⁹⁰⁾ 그렇다면 강해 설교의 유익한 점은 무엇일까?

- ① 강해 설교는 성경을 더욱 귀중하게 한다.
- ② 강해 설교는 설교자에게 권위와 능력을 준다. 설교자가 강단에 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신적 권위로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설교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 ③ 강해 설교는 교회의 설교전통과 일치한다. 사도시대의 복음의 설교자는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했고 베드로나 바울도 그

90) 이성현, ‘설교의 원형으로서의 강해설교’, 신학지남 40호(서울: 총회 신학교, 1973), pp. 40~50.

들 자신을 성경의 해석자로 여겼던 것이다. 초대교회의 전성기때 지도자들도 성경을 해석 하기 위해 애썼고 종교개혁때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성경 해석자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혁자의 정신이 지배하는 곳 어디서나 성경의 해석을 존중했다.

④ 강해 설교는 교인들에게 풍성한 꿀을 먹인다. 사도들과 초대 교부들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사람들이 주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도우는 확실한 수단으로 성경으로 부터 말씀을 전파했다.

성경적 설교가 빈약할 때 신자들은 영적으로 약해지고 마침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말씀 설교야말로 설교자 자신에게는 가장 깊은 희열을 주고 청중들에게는 가장 고귀한 영적 선물을 안겨다 줄 것이다.

⑤ 강해 설교는 풍부한 설교자료를 제공한다. 성경을 연구하고 주해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열매는 메마르지 않는 신선하고도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바로 설교이기 때문이다.

3. 강해 설교의 가치

강해 설교야말로 올바른 설교신학이며 성경적 설교의 원형인 것이다. 그 이유는 강해설교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설명하고 예증하며 또 적용하려는 노력이고 설교자가 그의 생각, 마음, 지력 그리고 노력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찾아내고 또 그에 대한 영감이 자기 마음속에 스쳐 지나갈 때

까지 그리고 그말씀이 살아 불타오를 때까지 생각하며, 묵상하며, 울고 기도한 끝에 전달하기 때문이다.⁹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 갈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래지고 그것으로 그치는 법이 없다. 에스겔의 시대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든지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신다.⁹²⁾ 따라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임무는 그의 말씀의 원칙을 오늘날 사람이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말로 옮겨 놓는 일인 것이다.

91) H.E.Knott, 주해설교, 안형직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3), p. 13.

92) Denis J.V.Lane 강해설교, 최낙재역 (서울; 한국섭서 유니온, 1983). pp. 131 ~ 132.

VIII. 개혁주의가 지향해야 할 설교현장진단

설교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전제한다. 불신자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설교를 듣고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믿음, 깊은 회개, 진리에 대한 확신, 경건한 생활에 대한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설교는 지식전달이 아니라 그 영혼을 움직이고, 의지를 움직이고, 인격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⁹³⁾ 지금까지 설교자의 정성과 영이 담겨진 메시지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발생된 청중과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므로 영적번민을 시작한 청중들에게 거듭날 수 있도록 결단을 시키며 붙잡아주는 진지함이 설교자의 마지막까지 사명이라고 볼때 초청과 결단은 설교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⁹⁴⁾

1. 초청과 결단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매어 가을에 열매를 거두듯, 영적으로 변화된 영혼들을 거두는것,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등재시키는 것은 설교의 결실이요, 설교자의 보람이라 할 수 있다. 예수

93)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p. 197.

94) 김학인, 「생명력 있는 설교」, (서울: 도서출판 에루살렘, 1991), p. 198.

님은 그의 공생애 기간에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의 처한 환경마다에 은총을 베풀었고 구원의 결실을 거두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 전파자로 사명을 받은 바울은 그가 전파한 복음의 현장에서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작업에 특별한 성과를 보였다.

선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반응과 결실을 거두는 것이 초청의 당위성이다. 또한 죄악에 젖어 있다가 의의 세계, 영생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장애가 크다고 본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했던 부자 청년이 결국 영적 출산의 과정에서 거둬나지 못하고 사산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목양처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신앙으로 살아 보려고 교회를 찾은 사람에게 교역자나 먼저 믿은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의 제시와 격려를 통해 영적으로 조금만 부축해 주면 참 신자로 변신하는 경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많은 내외적요인 때문에 불신앙 상태로 좌초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같은 시간에 같은 복음을 들었어도 개인적인 경험이나 여러가지 요건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설교자의 초청은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귀의를 선택하는데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⁹⁵⁾

95) Ibid., pp. 185~186.

2. 초청에 대한 반응

1) 반대의 반응

헌신의 요청, 요청의 기회, 참회형식, 은혜의 좌소, 공적인 초청, 공적인 서약, 그물을 당긴다. 등의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는 초청에 관하여 찬반 양론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19세기 부흥운동의 기수인 찰스 피니(Charles Finney, 1792 ~ 1875)가 1833년 뉴욕 로체스터 전도대회에서 초청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그후 전도대회나 각 교회의 예배시에 이 제도는 일반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모든 예배에 모든 교파가 호응한 것은 아니다.

찰스 피니와 같은 시기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했던 칼빈주의자 네틀톤은 많은 설교를 행했던 위대한 전도자였다. 그의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교회를 부흥시킨 시대적 전도자였으나 헌신과 구원에 대한 초청의 방법은 동원하지 않았다. 이 초청에 대한 상이점은 두 사람 사이의 쟁점으로 끝나지 않았고, 당시의 기독교계에 찬반 양론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⁹⁶⁾

영국이 낳은 제2의 스펀존으로 부르는 20세기의 대설교가 로이드 존스(Dr. Martin Lloyd Jones)는 교리적 뒷받침이 된 반박 사항을 그의 저서 “목사와 설교”의 내용물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그는 초청이란 자체를 인위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근본적으로 부정

96) Ibid., p. 187.

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와 설교” 중 제 14 장 “결심의 요청”에 열 개 항목의 반박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홉째 항목의 일부가 전체적인 반박 이유의 압축이라 본다.

“아홉번째 항목 요점— 그것이 중생 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 즉 이 중생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고 오직 그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점은 이문제와 앞의 문제를 덮어 줍니다. 참된 죄의식의 역사, 즉 중생과 믿음의 선물을 주심과 생명을 주시는 참된 역사는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생이 성령의 사역이듯이 그 일의 전 과정도 그가 말합니다.

그 중생의 역사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오순절날에 일어난 가장 극적인 모형을 봅시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파헤치고 그것들을 적용했습니다. 어떤 기술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와 호소 사이에 어떤 막간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끝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전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그것은 자동적으로 나타나야 되었습니다.” 라고 이유를 들었다.

심지어 위대한 알마니안의 대가인 요한 웨슬레까지도 “믿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한가지 아이러니한 일은, 초청에 대하여 극적인 반대와 더불어 초청 자체를 반대 했던 로이드존스 목사의 후임으로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캔달(Dr. R. T. Kenn dall) 목사님은 초청에 관하여는 전임자인 로이드존스와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그는 설교시 초청에 관하여 적극적인 옹호자일뿐아니라 전임자가 극명하게 반대하던 그 예배당에서 그 성도들에게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복음사역의 비밀이 될 것이다.⁹⁷⁾

2) 찬성의 반응

(1) 성서적 근거

- 창세기 3:9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있느냐” 죄로 피하여 숨은 상태에서 용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 창세기 6:17 ~ 18 홍수의 죽음 가운데 방주로 노아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 열왕기상 18:21 “너희가 어느때까지 두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지니라”
- 이사야 55:1 ~ 3, 6 ~ 7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를 청종하라..... 내게 나

97) Ibid., pp. 187 ~ 188.

아와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 호세아 14:1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 사도행전 16:3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98)

성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진 약속의 말씀이다. 이 예비된 축복을 베푸실 때 일방적으로 내밀어 주시지 않는다.

예비하시고 알려주시고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을 따라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아담으로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즉 성서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초청장인 것이다.⁹⁹⁾

(2) 교회사적 근거

1973년 여의도의 전도대회에서 빌리그래함 목사님이 설교시간에 초청과 결단이란 순서가 매일 저녁마다 있었다.

98) Ibid., pp.189 ~ 190.

99) Ibid., p. 191

◎ 손 드십시오

- 클르보크의 성 버나드 (Bernard of Clairvaux, 1093 ~ 1153) 12 세기의 설교가로서 최초의 초청 설교가

◎ 예배가 끝난 후에 영적으로 상담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주세요.

- 조나단에드워드 (Jonathan Edward, 1703 ~ 1758) 구원초청에 응한 사람에게 1 ~ 8 주간의 성경공부를 시켰고 첫 번째 성찬때는 반드시 신앙 간증을 하도록 요구했다.

◎ 아랫층, 기도실, 상담실에서 상담

- 찰스피니 (Charles Finney, 1792 ~ 1875) 그의 사역 후기에 이 방법을 채택
- 무디 (D.L.Moody, 1837 ~ 1899) 1876 년 일리노이 주의 집회에서 무디의 어머니가 일어났다.
- 스펄존 (C.H.Spurgeon, 1834 ~ 1895) 그는 청중이 손을 들거나 앞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설교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서는 설교의 끝을 맺는 경우가 없었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초청의 요소가 있었다.

◎ 앞으로 나오시오

- 존테일러 (John Taylor) 1785 년 미국 테네시의 집회에서 “기도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초청했다.

◎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 로렌즈 도우 (Lorenzo Dow, 감리교)
- ◎ 일어서고 손을고 강단앞에 나와서 상담받음.
- 샘 존스 (Sam Jones, 1847 ~ 1906 , 감리교) 100)
- ◎ 앞에 나와 영접기도 복창
- 덕슨 (A.C.Dixon. 1854 ~ 1925 , 스필존 목사의 후임자)
“철이 뜨거울때 두드려라,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었을때 그대로 지나치는 것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
- 죠시 스미스 (Gipsy Smith, 1860 ~ 1941, 감리교)
- ◎ 기도시간을 갖고 절단하며 강단 앞으로 나와서 결신의 기도를 따라함.
- 빌리 그래함 (Billy Graham, 1918 ~) 그는 초청을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 ”이란 표현으로 불렀다.
그의 방법은 처음에 머리를 숙이고 눈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손을 들게했다. 세번째 단계로 앞으로 나오게 했고 상담신로 가도록했다.

빌리 그래함 목사님은 자신의 초청 철학에 관하여 세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예수님도 역시 공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는가? 숨어서 비공개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는데서, 거리에서 자신을 따르도록 공식적으로 초청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공적

100) Ibid., pp. 191 ~ 192.

으로 초청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간이 범죄할 때에도 삶의 한가운데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회개의 결심도 역시 삶의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공개적이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 당하신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고백도 역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는 자신의 설교에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의 설교가 이론중심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언제나 철저하게 복음중심의 설교가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론은 토론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선택의 결단을 요구할 뿐이다. 내가 복음을 설교했다면 어떻게 선택의 결단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빌리 그레함 목사의 초청에 대하여 영국 사람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한다.

빌리 그레함 목사도 역시 초청 행위자체의 신비한 의미를 제공치 않는다는 점에 대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고백을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외적인 신앙고백을 강요하지 않으려 했다.

초청 그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초청이라는 행위가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다.¹⁰¹⁾

101) Ibid., pp. 193 ~ 194.

3. 초청하는 복음의 적용

설교자가 남다른 문학적 소양이나 웅변의 기능이 특출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종교적인 성과나 목회자의 실적이 목표가 아니라 진정 잃어버린 양을 찾아 아버지의 품안에 안겨 드리는 초청과 결단이야말로 성령님이 추구하는 목표일 것이다. 그러므로 초청은 생명력있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청중의 영혼에 도전하도록 한다.

첫째, 인간의 창조와 오늘 나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루도록 한다.

둘째, 하나님의 배려와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케 되었다.

셋째,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비극은 모두 죄에서 연유되었다.¹⁰²⁾

넷째,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길이다.

다섯째, 믿음에 반응하는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

지금까지 설교자의 정성과 영이 담겨진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발생된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과, 애절한 주님의 음성으로 초청장이 발부된 모습을 보였다. 성령께

102) Ibid., pp. 195 ~ 196.

서 저들의 미음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초청받은 심령들은 영적으로 번민하기 시작한다. 영적 출산의 고민에 빠져있는 믿음의 청중을 거듭날 수 있도록 결단 시키며 붙잡아 주는 진지함이 선교자의 마지막까지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다.¹⁰³⁾

103) Ibid., pp. 196 ~ 197.

IX.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살핀대로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해 온 때는 언제나 그 시대에 위대한 설교가 작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설교가 바로 선포될 때는 교회가 든든히 섰지만 설교가 바로 선포되지 않았을 때는 교회가 병들었고 흠어지고 동시에 사회가 병들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실한 해석이 없이 설교자들이 말씀에서 떠나 자신의 지식이나 의식, 그리고 전통들을 중심으로 설교할 때 말씀은 사라져 갔고 교회는 침체에 빠져들어 갔으며, 사회와 가정과 개인 문제도 병들어 버렸다. 그러나 그 시대의 설교자들이 오직 말씀에 기초하여 성경말씀 전부를 설교할 때 그 시대의 교회는 살아있었고, 힘이 있어서 사회와 가정과 개인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며 회개를 촉구했고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성경적 회복운동을 전개했고 청교도 설교가들도 성경에 철저히 입각한 복음적 설교를 선포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또한 신구약 어느 한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경 전체를 설교하는 개혁주의적 설교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현대사상과 현대신학이 난무함으로 강단의 말씀 선포가 변질되어 가는 시대에 이러한 개혁주의적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개혁주의 사상을 따르는 것은 어떤사람들의 말처럼 케케묵은 낡은 교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성경에 대한 충실성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기초가 되고 그것을 해설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비록 세월이 흘렀고 시대적 상황과 환경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며 104)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싸워야 한다. 105) 이제 강단을 맡은 설교자들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설교사상을 올바르게 확립하여 강단에 설 때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선포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며 어두워진 교회와 이 시대에 찬란한 말씀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야 할 것이다.

104) 고후 13:8

105) 갈 1:8

참 고 문 헌

- 곽안련, 설교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1.
- 김학인, 생명력있는 설교, 서울:도서출판 예부살렘 1991.
- 유부용, 성서적 설교와 한국교회 강단, 서울:문장출판사 1984.
- 이순환, 신약원어 연구해설, 서울:청암사 1980.
- 이성현, 설교의 원형으로서의 강해설교, 신학지남 40호, 서울:총회신학교 1973.
- 이주영, 현대설교학, 서울:성광문화사, 1983.
- 임택진, 목회자가 쓴 목회학, 서울: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79.
- 정성구, 설교학 개론, 서울:세종문화사, 1983.
- 정성구, 실천신학 개론, 서울:총신대학 출판부, 1984.
- 정성구, 한국교회 설교사, 서울:총신대학 출판부, 1986.
-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총신대학 출판부, 1991.
- 정용섭, 교회갱신의 신학, 서울:대한기독교 출판사, 1979.
- 정장복, 인물로본 설교의 역사, 서울:장신대학 출판부, 1986.
- 후등광삼, 설교학, 서울:은혜사, 1970.
- 기독교 대백과 사전 제 8 권, 서울:기독교문사, 1983.
- 신학사전, 서울:한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8.
- Boren, Rudolf, 설교학 원론, 박근원 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 Brown, Henry C., 설교의 구성론, 정장복역, 서울:양서각, 1984.
- Knott, H. E., 주해설교, 안형진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73.

- Lane, Denis J.V., 강해설교, 최낙재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1983.
- Loyd-Jones D.M., 목사와 설교, 서문강역, 서울: 예수교 문서선교회, 1977.
- Loyd-Jones D.M., 성령론, 홍정식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6.
- Skudlarek, William, 예배에 있어서의 설교, 차호원역, 서울: 소망사, 1985.
- Spurgeon, Charles H.,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I, 이상태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Stott, John, 설교자상, 문창수역, 서울: 한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7.
- Stott, John,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역, 서울: 풍만출판사, 1985.